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6호](2014.2)

서울시 용
산구 청파
동 3가
119-2 진
여원홍보팀

2014년 한수행을 뜨거운 각오의 열기로 녹인 진여교도!

2014년 한수행이 연초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개최되었다. 개백 3일간은 새벽 6시 30분, 결원 3일간은 저녁 7시에 각각 개최되었다. 서울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에 세 차례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예년과 유사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많은 교도가 참좌하여 새해 1년간의 새로운 정진(立願 : 입원)을 각오하는 기도를 깊이 하였다.

작년 연말부터 1층 보전과 3층 신도회관 및 청년부실을 대폭 수리하여 새롭게 개장된 서울포교소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교도들이 신나는 마음으로 참좌하여 한수행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부산포교소는 부산정사 건립으로 인해 현 포교소에서는 한수행이 마지막으로 개최된다는 점으로 인해 신도들의 참여열기가 매우 높았다.

작년에 새롭게 이전·개장한 창원포교소는 정사 위치의 편리함으로 인해 많은 교도들이 화합속에서 새로운 포교소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좌하였다.

제주포교소는 교도들이 섬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 다소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깨뜨리는 지혜의 등불로 길을 밝히며, 개조·영조께서 행하신 당시로 돌아가 행하는 추체험의 한수행을 하였다.

한수행으로 다져진 교도들의 입원(立願)은 2월 3일 절분회를 통해 만원(滿願)이 된다.

상참배 준비 착실히 진행

개최가 다가오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상참배'를 위한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작년 말 '상참배 준비 프로젝트팀'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프로젝트팀의 박노경 팀장은 '상참배' 준비를 교도분들과 함께 하면서 몇 차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의 모습을 훌륭하게 조각한 '상'을 법당에 잘 모셔보자는 생각이. ...수 많은 교도분들이 기념을 올리고, 제접접수, 받고대수의 구제를 체험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네 분의 참마음, 혼이 깃들여 있는 '불상'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이제는 생전의 모습을 뵈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으로만 뵈 수 있었는데, 가르침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우리들을 직접 만나러 오신다는 기쁨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오시면 뭐라고 인사를 할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부처님을 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입니다"며 상참배 준비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지류학원 후기시험 실시

지난 1년간 학습한 불교 교학내용을 테스트하는 지류학원(智流學院) 후기시험이 1월 26일 서울과 부산 포교소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시험은 수행과, 본과, 연구과로 나뉘어 치러졌는데, 금년에도 많은 교도들이 진여교학 시험에 진지하게 임했다.

특히 노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지난 1년간 열심히 가르침을 익힌 노년 교도들이 많아 장년 및 청년 교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김포의 이국남 여사는 “70을 넘은 이 나이에든 개조님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도움되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밀교의 가르침인 만큼 쉽지는 않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으신 개조님이 설하신 바를 열심히 배우면서부터 아픈 몸도 낫고 있습니다”며, 가르침을 배우는 기쁨을 즐겁게 토로하였다.

서울포교소 일부 보수, 새롭게 단장

작년 12월 29일부터 보수작업에 들어간 서울포교소의 보수공사가 한수행 개최 직전인 1월 15일 완료되었다.

1층 보전과 3층이 보수되었는데, 1층 보전 입구는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보전 입구에 교도들의 대기공간 및 사무국 접수 카운트가 확대되었다. 보전내부도 깔끔하게 단장되어 따뜻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노후도가 심했던 3층 신도회관의 바닥도 말끔히 개장되었으며, 특히 3층의 복도와 청년실이 대폭 정비되었다. 청년실은 꿈많은 정서가 풍부한 청년들의 이미지에 맞게 카페와 같은 느낌의 낭만적인 분위기로 단장되어 청년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부산정사 추위에도 공사 원활히 진행되어, 외관 완성단계

부산정사의 신축공사가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1월 20일에는 3층 옥상도 완성되어, 향후에는 외벽미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들어가게 된다.

전국 모든 진여교도의 뜨거운 기도 속에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정사 신축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3월이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한다.



[체험담] 성지 총본부 참배로 받고대수의 힘과 진여교도의 뿌 듯함을 확신하고 단단히 정진하는이종택 교도

저는 2년전에 진여원에 입신하였습니다. 아내를 하나 뿐인 자식을 위해 20여년 전부터 한국 절에서 기도해 매진하고 있으나, 30세가 넘은 아들은 아직도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자의 고생이 1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을 보시고는 진여원에 나갈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정년퇴직한 상태여서 아들에게 도움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였기 때문에 진여원에 입신했습니다.

진여원에 다니다보니 저의 종교관과 불교에 대한 이해는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접심의 영언은 무속인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영적교감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여원의 대중구제 방법은 타 종교나 다른 불교 종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화·현대화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신한 것은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는 대승이타를 강조하는 가르침의 본질과 다름을 알고는 회의와 번뇌가 지속되었습니다. 갈등 속에서 상구보리를 하자 총본부 참배를 권유받았고 저는 기꺼이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총본부를 참배하여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의 영묘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타치가와에 도착하여 먼저 응현원으로 갔습니다. 응현원에는 교도수가 무척 많고, 부지와 건물이 매우 넓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여원은 번창하고 있는 불교종파로 생각되었습니다. 입구에 모셔진 천령계·지령계 호법선신님, 법당내의 석가여래, 십일면관세음보살님과 여러 보살님, 부동명왕님,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께 참배했습니다. 경내를 둘러보니 3만평의 넓은 부지와 큰 건물이

용도별로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법당입구에 많은 신발장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청결하고 질서있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후에는 성지 총본부에 도착하여 종정스님의 거처에 인사한 후 성지 진여영묘를 참배하였습니다. 저는 “현대의 여래이신 홀륭하고 존경하는 개조, 영조님! 한국에서 온 이종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진여교도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원인 아들의 고생이 끝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야마나시로 갔습니다. 야마나시는 개조·영조의 고향이라는 말에 긴장되고 호기심이 더했습니다. 호수가에 위치한 주변의 야경이 무척 아름다웠고, 명산 후지산 부근이라는 말에 멋진 관광을 하게 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야마나시 별원에 모셔져 있는 부동명왕님과 개조, 영조의 존영앞에서 진여원 교도로서 가르침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쿄에 있는 우심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심원은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고가의 부지에 건축되었다는 말에 다시 한번 진여원의 가르침은 일본에서도 평가받고 있으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참배하고 법당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대만열반경과 개조·영조의 가르침을 잘 나타내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예술적인 건축에 놀랐습니다.

저는 성지 총본부 참배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진여원의 교도가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고 개조·영조, 교도인·신도인님의 받고대수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청파동 칼럼>
**시詩가 있는 마음의
 풍경** - 한수행 정진에
 백이운 白利雲

부산포교소, 부회 주
 도의 오프하우스

1월 15일 개최된 부산의
 제3차 오프하우스는 부회
 주도로 이루어졌다. 사진

해마다 12월 동짓날 별공양 개백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 3일 절분회까지 우리 절에서는 한수행(寒修行)이라는 겨울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회동에 서울포교소가 개소된 1992년에 입신하였으니 이번 한수행으로 스물두 번째 겨울수행을 마치는 셈입니다. 재가불자인 저희에게는 한수행이야말로 동안 거에 해당하는 셈이지요.

이번 겨울은 예전에 비해 눈도 별로 없고 날씨도 그다지 춥지 않아 마음도 훨씬 가벼웠던 듯싶습니다. 40여 년간 책 만들고 잡지 내던 일에서 벗어나 이제는 교도 분들과 더 편안하게 법담(法談 : 가르침 이야기)과 다담(茶談)을 나누게 되어 무엇보다도 즐겁습니다.

1935년 12월 28일, 진여 개조와 영조께서 부동명왕을 모시고 30일간의 엄한 한수행을 하신 공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한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만 사람이 깨닫는다는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주신 가르침의 어버이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조·영조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보사 : 報謝)해 나가는 길은 역시 몸소 저희에게 보여주신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더듬어 따라가는 일이지요.

한수행을 통해 올 한해 자신의 정진 목표를 다져가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저로서는 춥고 햇빛 있는 낮 시간이 짧아 애석하던 겨울이 한수행이 있어 마음 든든하고 즐거웠던 지난 20여 년입니다.

지난 해 한수행 무렵 발표한 저의 줄시에 붙여 이런 산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시> 꽃과 겨울

할미꽃을 바라보는 눈 그윽한 겨울

세상의 모든 겨울은
 마흔 해 전에 있고

세상의
 모든 꽃들은
 현재로만 피어 있다.

발굴, 전시 등도 모두 부회가 직접 행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의 진여원 발전 과정, 사회공헌 내용, 전세계적인 상삼배 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작 노트>

며칠 전 절에서 교도들과 차를 마시며 나누는 얘기다. 평소 강직한 성품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약간 외경의 대상인 노보살 한 분이 이번 겨울 수행에서는 깨달은 바가 많다고 얘기를 꺼내신다.

사람들이 뭘 좀 잘못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곧바로 지적을 하곤 했는데 그런 마음을 좀 부드럽게 바꿔 주십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올해는 꼭 실천을 하겠다신다.

‘그게 바로 우리 가르침인 섭수(攝受)랍니다’ 말씀드렸더니 보살님의 얼굴이 환해지신다. 거기에 덧붙여 해드린 이야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활짝 웃는답니다. 오늘 아침 처음 만나는 저의 불성(佛性)을 향해 세상을 다 안을 듯이 활짝 웃어 준답니다. 그러면 마치 마음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듯이, 마음의 그릇, 그 그릇이라는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빛으로 둘러싸인답니다. 한순간이나마 말이지요.’

그 순간 노보살과 젊은 교도들의 마음이 환해지며 각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들을 피워냈지만, 그런 나의 허풍이 때로는 시조라는 이름으로 목숨 받기도 한다.

자기의 불성과 마주보는 일이 접심입니다. 접심수행(유상접심)에서 받은 가르침(영언)을 일상생활에서 무상접심으로 살려가는 일이 신노 개조와 영조께서 저희에게 가장 바라고 계신 일일 것입니다.

이번 한수행에는 초신자 분들과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어 약동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도 한수행 때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 불성을 닦아 가는 정진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